

기업의 '인수·합병'에 관심 집중

국내 M&A 집중 소개한 책 늘어

지난해까지 기업 인수합병(Merger & Acquisition)에는 법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 초 대량 주식취득 제한 규정인던 증권거래법 200조가 폐지됨에 따라 기업 인수합병의 걸림돌이 완전히 제거되었다. 삼성그룹이 드러내놓고 타 자동차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것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다.

경제불황과 주식시장 약세에도 불구하고 기업 인수합병 돌풍은 그치지 않았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나 제약 및 제2금융업종에 대한 기업 인수합병 건수가 많았다. 기업 인수합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회사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런 국내 상황을 반영하듯 서점가 경영서 코너엔 M&A에 관한 다양한 책들이 즐비하다.

기업 인수 합병의 바람 반영

국제변호사 이동호씨의 《M&A 매뉴얼》, 선경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인 박희연씨가 펴낸 《M&A 전쟁과 기업혁명》, 성보경씨의 《M&A와 기업 탈취전략》과 《M&A 전문가를 위한 기업 인수합병 전략 매뉴얼》, 그리고 번역서로 《중소기업의 M&A 전략》과 《M&A 극비지령, X사를 매수하라》 등이 이 코너의 주역들이다. 중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현재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끌고 있다.

《M&A 매뉴얼》(매일경제신문사)은 미국의 기업 인수합병 제도를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미국 진출을 꿈꾸는 국내 기업의 M&A 팀을 위한 안내서 역할도 해준다. 저자는 우선 기업 인수합병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국내 기업의 경영 효율성 제고, 기업의 전문화와 대형화, 새 업종전환의 자유 부여 등 당면한 문제나 새로운 경제구조를 반영할 때 기업 인수합병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국내 기업 인수합병은 아직 걸음마 단계. 국내에서 활발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저자는 몇가지 설명을 덧붙이는데, 첫째 재벌경제가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관치금융으로 70년대 이후 투자 기회가 무한정 많아져 굳이 다른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할 필요가

경제불황과 주식시장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인수합병 돌풍은

그치지 않았다. 이른바

M&A를 적극 검토하거나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회사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런 국내 상황을

반영하듯 서점가 경영서 코너엔

다양한 관련서적이 늘고 있다.

없었다. 이와 함께 근로자 감원이 쉽지 않다는 것도 그 이유다. 근로자 감원을 통해 경영의 합리화를 피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고, 우리의 국민정서상 기업 인수합병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기업 인수합병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업 인수합병을 반대하는 입장은 경쟁력이 집중되어 독점현상 가중, 가격 인상, 자원 분배의 왜곡 현상 등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 저자는 지금까지 유명무실했던 공정거래법을 활성화시키든지, 미국의 독점금지법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외국 자본의 유입에 대해서는 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외국 자본과 정면 대응할 자세를 견지할 것을 촉구한다. 저자는 또 외국 M&A 때 주의할 점으로 업종 선택 규모와 비용·시기·가격, 미국에선 미국식으로 일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의사항도 일러 준다.

일본 중소기업단 중소기업연구소에서 펴낸 《중소기업의 M&A 전략》(갈정웅 옮김, 창해)은 증권거래법 200조 폐지가 상장주식의 10% 이상 취득시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제도를 폐지한다는 뜻도 포함된 반면 구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M&A를 설명한다. 기업 인수합병에 관련한 경영자 앙케트 조사분석을 비롯해서 일본기업의 미국기업 인수사례와 39개 항목의 설문조사로 합병 후의 성공 요인을 열거한다. 번역자



갈정웅씨는 지난 91년에도 《M&A의 모든 것》(명진출판)이라는 책을 펴낸 바 있는데, 이 책은 지금도 서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M&A에 관련된 용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다.

《M&A 전쟁과 기업혁명》(넥서스)의 저자는 우선 기업 인수합병을 비도덕적인 행위로 보는 시각부터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 인수합병이 중요한 경영전략으로 부각되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기업 인수합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 성장하고 투자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지론.

이에 따라 매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좋은 기업을 얻가로 적기에 아무 말썽 없이 성공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전략을, 매각자 입장에서는 적기에 비싼 가격에 피해 없이 명예롭게 매각하는 전략을 제시한다. 외부로부터 가해오는 기업 인수합병 요구에 대한 방어전략도 자세히 알려 준다. 또 주가변동에 따른 기업 인수합병의 내용과 함께 부록으로 관계법령을 실었다.

기업도 '상품'이라는 새로운 논리

'우리 나라에서도 강제적 기업 매수가 가능하다'는 부제를 달고 있는 《M&A와 기업 탈취전략》(창해)은 10개 장으로 내용을 나누어 기업 인수합병을 설명한다. 제1장에서는 기업 인수합병 활성화 이유와 필연성을, 제2장에서는 경영풍토, 기업 소유형태,

외국 기업과의 경쟁력, 기업 인수합병 활성화 전망을 소개한다. 이후 제3장에서는 전문 기업 탈취자들이 사용하는 기업 인수합병 전략을, 제4장에서는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다국적 기업화하는 과정을 담았다. 이외에도 5장과 6장에서는 기업 인수합병 이론을, 8장에서 10장까지는 리스트럭처링, 지하경제 활용법을 제시한다. 성보경씨의 또다른 책 《M&A 전문가를 위한 기업 인수합병 전략 매뉴얼》(프론티어인터넷)과 한 짝을 이루어 보면 더 도움된다.

《M&A 극비지령, X사를 매수하라》(모리나가·시모다 공저, 최학준 옮김, 을지서적)은 M&A 선두업체인 미네베어사에서 'X사 프로젝트'라고 명명한 기업합병 전략을 진행시킨 미네베어사 다카하시 회장과 프로젝트 팀을 추적한 다큐멘터리 형식의 기업 인수합병 실화다.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내용이다.

기업 인수합병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경영 효율화, 국제경쟁력 강화를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국제경쟁에 전념해야 할 국내 기업들이 필요 없이 경영권 방어에 신경써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업도 상품'이라는 새로운 논리가 우리 경제계에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위의 책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다. <이성수>